

성경에 나타난 공간디자인 의미탐색: 출애굽기 성막건축을 중심으로

박지연 백석대 부교수

논문초록

본 연구는 기독교적 학문연구와 고등 전문교육에서 얻게 되는 지식을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성경에 나타난 일(직업)의 관점을 기독교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기르고자 하는 지향점을 갖고 시작되었다. 즉, 연구자의 전문영역인 공간디자인 분야에서 성경적 의미를 연결하여 탐구해보고 공간을 디자인하는 전문가이자 기독교인으로서 일(직업)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성경에 나타난 공간디자인을 살펴보기 위해 출애굽기에 나타난 성막건축을 중심으로 공간디자인의 의미를 탐색한 보았으며 그 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디자인 프로세스의 전반에 흐르는 사고과정에서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으며 설계안을 구현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방안과 기술 등 정교함이 동반되어야 한다.

둘째, 하나님의 은사는 교회의 일을 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간디자인 분야의 일을 수행하는 창의적인 일을 위해서도 주어지는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피조물과 문화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도움이 된다.

셋째, 성막건축을 위해 부름 받은 브살렐과 모홀리압 사례를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지명하여 부른 자에게 아름답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최적의 능력을 주신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성경, 그중에서도 성막건축의 세세한 과정이 묘사되어 있는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공간디자인과 그 일을 수행하는 공간디자이너로서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후 주석 성경 연구와 보다 폭넓은 자료조사를 병행하여 공간디자인의 일반적인 프로세스와 성경에 나타난 성막건축 과정을 비교 분석해봄으로써 깊이 있는 함의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주제어: 공간디자인, 성막건축, 디자인씽킹, 기독교, 디자이너

I.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본 연구는 기독교적 학문연구와 고등 전문교육에서 얻게 되는 지식을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성경에 나타난 일(직업)의 관점을 기독교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기르고자 하는 지향점을 갖고 시작되었다. 즉, 연구자의 전문영역인 공간디자인 분야에서 성경적 의미를 연결하여 탐구해보고 공간을 디자인하는 전문가이자 기독교인으로서 일(직업)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이는 기독교인 교육자이자 학자로서 오래전부터 신앙적 갈망과 책임감에서 비롯된 당연한 시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하여 미술과 디자인의 기독교적 의미를 우선 정리한 후에 성경에 나타난 성막 건축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의 깊이를 더해보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주제와 관련된 주요도서와 논문 등의 문헌을 고찰하고 전문가 토의 및 토론 방식의 간담회를 통해 고찰한 내용을 검증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서 답을 찾고 그 말씀을 인용하여 해석의 근거로 삼고자 하였는데 이 과정 또한 의미 있는 탐색의 여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는 성막 건축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므로 성경 말씀 중에서도 출애굽기를 중점적으로 연구해보고자 한다.

II. 기독교와 공간디자인

1. 예술사속 공간디자인(기독교예술)의 변화와 현재¹⁾

서양미술사에서 18세기 이전의 예술과 예술작품은 대부분 기독교 교리가 예술표현의 수법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독교 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특히 중세시대에는 기독교 신앙이 삶과 구조적인 연관을 맺고 있었기에 예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었으며 예술행위는 곧 영성을 드러내는 작업이었다. 예를 들어 공간디자인에서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은 전 과정이 신앙 행위로 간주되어 성직자뿐 아니라 귀족과 평민이 모두 동참하는 희생의 행위였으며, 이러한 행위와 연관된 미술과 디자인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시각적 표현 도구였다고 할 수 있다.

산업혁명이후 19세기의 시작부터 다양한 예술적 이념이 탄생하고 20세기 들어 추상의 개념이 대두되면서 현대예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가운데, 예술은 순수한 아름다움 자체를 드러내기

1) 2021-2학기 백석대학교 기독교대학실천원에서 주관하는 기독교학문연구 소모임 '진격의 불살렐과 오홀리암' 결과보고서 내용을 요약적으로 재정리함.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져 성경말씀을 전달하는 기능이 쇠퇴하였다. 자연히 예술가들도 교회에서 멀어지고 더 이상 신앙적 표현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19세기 교회 미술과 건축은 전통이나 시대정신과도 거리를 둔 채 사회와 고립되고 몰개성적인 절충주의에 젖어있었으며 20세기 초 극에 다다랐다. 결국 근대이후 기독교예술은 현대예술의 발전에서 소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점점 다원화와 세속화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분위기였다.

정체된 것처럼 보이는 교회미술에 도미니크 수도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하여, 프랑스의 마리 알랭 퀴티리에 신부가 중심이 되었던 1930년대 성미술운동(L'Art Sacre)은 교회 안에 현대미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 퀴티리에 신부는 아씨(Assy) 성당의 실내디자인 프로젝트에 알리 마티스, 조르주 루오, 마르크 샤갈 등 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수용하였다. 아씨 성당의 공간디자인은 강렬하고 진취적이며 위풍당당하게 빛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힘을 느끼게 해준다. 부드러운 조각과 영롱한 스테인드글라스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자제력을 잃을 정도로 충격적이기도 하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술의 공간적 통합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씨 성당의 작품들은 처음엔 꽤 오해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 작품들이 상징을 통한 성서적인 표현과 엄숙함에 얼마나 적합한지 곧 드러난다.²⁾

이처럼 아씨 성당을 시작으로 마티스의 로자리오 성당, 마크 로스의 로스코 채플 등 현대예술을 통해 신앙의 경건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사례들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훗날 모더니즘 건축의 대가 르코르뷔지에의 라투레트 수도원과 롱상성당 건축으로 이어진다. 특히 롱상성당은 20년간의 성미술운동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의 창작에 의해 달성된 롱상성당은 현종교건축의 빛나는 '선언'으로 우뚝 서 있다.³⁾

한편 한국의 현대교회건축에 대해 이은석은 다섯 가지 현대적 개념을 제안하였는데 첫째, 고딕양식에서 벗어난 단순함의 새로운 상징성을 가질 것. 둘째, 권위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역동적인 목회자와 회중의 친밀한 관계성을 회복할 것. 셋째, 추상적인 공간개념을 가질 것. 넷째, 장식에서 벗어난 절제의 가치를 추구하며 교회건축의 실질적 재료를 사용할 것. 다섯째, 교회기능의 패러다임 변화에 주목할 것 등을 언급한바 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한 사례로 1887년 언더우드 목사가 세운 '한국 장로교 최초의 조직교회'라는 상징성을 지닌 오랜 역사의 새문안 교회가 지난 2019년도에 새롭게 완공되어 영국디자인 전문잡지사인 디즌이 선정한 '세계10대 교회 및 예배당 건축물'로 선정되고 미국 AMP 건축마스터상을 받는 등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다.⁴⁾

2) 김정신 (1999). 20세기 현대교회건축 운동에 관한 비교연구. 건축역사연구 제8권 4호 통권 21권, p.138 재인용

3) 김정신 앞의 책, p.140 재인용

2. 성경에 나타난 공간디자인

디자인의 개념과 정의⁵⁾를 살펴보면 “디자인(設計, design)이란 주어진 목적을 조형적으로 실제화하는 것으로 의장(意匠)이나 도안을 말하며,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지시하다다 표현하다 성취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의 데시그나레(designare)에서 유래한다. 디자인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종류의 디자인이든지 실체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디자인은 주어진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조형요소(造形要素) 가운데서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그것을 합리적으로 구성하여 유기적인 통일을 얻기 위한 창조활동이며, 그 결과의 실체가 곧 디자인이다.” 이러한 정의에 비추어 디자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창의성을 바탕으로 조형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작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디자인 활동, 특별히 최초의 성전인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공간디자인과 공간디자이너의 의미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1) 아트디렉터(총괄디자이너) 브살렐

우리는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일들은 마치 인간의 자유의지를 대변하고 본능적인 욕구를 분출하는 다분히 인본주의적 본성에 해당하는 영역이라고 자칫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술과 창작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야기로 시작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 되는데 바로 출애굽기에서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의뢰하기 위해 맡길 자의 영성을 보시고 택하여 사용하시고 있음을 출애굽기를 통해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지명을 받은 자가 바로 브살렐이다. 출애굽기 35장과 36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도록 하셨는데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고 조각과 같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였고 함께 일하는 오홀리암을 감동시키고 가르치셨다. 무엇보다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들을 하도록 하신

4) 새문안 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종교시설이라는 점을 설계에 과감히 시도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왼쪽에 있는 종탑 부분은 광화문 사거리에서도 잘 보이도록 앞으로 볼썽 나와있지만 본당 건물은 U자 형태로 깊숙이 물러나있다. 원래 설계상 인도로부터 10m만 뒤에 있어도 되지만 이보다 30m 더 뒤로 건물을 집어넣었다. 교회 속은 그 덕에 마련된 넓은 앞마당을 시민에게 휴식공간이자 광장으로 개방했다. ... 일반적인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주렁주렁 매달린 대형 스피커는 외벽과 같은 색깔로 감췄고 대형 스크린을 없애는 대신 언제든 벽 위에 화면을 띄울 수 있도록 해 산만하지 않고 오래도록 차분함이 유지된다. 또 전자오르간 대신 유럽 성당에서 볼 수 있는 대현 파이프오르간을 설치했다. 모두 개신교회가 원래의 경건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고안된 설계다. 한국경제 2021.05.25

5) [네이버 지식백과] 디자인 [design]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것이다.

출애굽기 35장

- 30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 31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 32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 33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 34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 35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베 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지명하여 부르신 브살렐에게 필요한 소양은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바와 같이 지혜로운 마음이었다. 성막 짓는 일에 특별한 기술과 기법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특히 정교한 일을 하여야 하고 이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필요로 하며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된 결과로 묘사되고 있다(출애굽기 35장 31절). 뿐만 아니라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브살렐과 오홀리압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심(출애굽기 35장 34절)으로 인간의 고안하는 일, 창의성을 발휘하는 일을 이끌어내도록 하셨다.

디자인은 산업혁명이 도래하기 전에 사물을 그리고 창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디자인이 특별한 재능을 필요로 하던 시대에는 인간의 편의성을 높이는 디자인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기능성으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20세기 초부터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을 디자인으로 해석하고 그에 따른 목표와 계획을 설정하는 생동을 디자인 프로세스라고 정의하였다. 특별한 재능 없이는 불가능했던 디자인의 행위는 규정된 방법과 규칙의 준수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분야로 간주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인 현재 융합과 스마트 기술의 활용을 통해 물질적이든 비물질적이든 우리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⁶⁾

6) 오미현 (2021). 창의적 디자인사고와 디자인 프로세스를 고려한 공간디자인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지 제16권 6호, p. 11

디자인은 인간의 생각(디자인사고)에서 비롯되는데 김재인(2018)은 디자인사고가 “디자인행 위과정에서 창조적인 상상력의 전개와 실현 가능한 가치를 획득하고, 인간을 위한 디자인을 목적으로 하는 디자인의 가치를 재현하기 위한 문제 해결의 방법론”이라고 말한다. 그 사고의 배경으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가스통 바슐라르가 주장한 사고과정을 이해함으로써 디자인사고의 접근방법론을 인식하고자 하였다. 디자인사고를 디자인 과정에서 문제해결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방법론으로 정의하고 전개된 이 연구에서 인간의 디자인이 시행착오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디자인사고가 인간에게 주어진 고유한 능력인 창의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완벽한 도구로 당연시되는 지점에서 그것을 넘어서는 지혜가 있음을 새삼 인지하고 깨닫게 된다. 즉 기독교인인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처럼 좋은 디자인, 기술과 기법을 고안하고 정교한 일을 하기 위해서 또한 성령 충만함을 필요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올바른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일과 삶을 구분하려 하지 않고 온전히 통합하려는 삶의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다.

출애굽기 36장

- 1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 2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 3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 4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 5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 6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 7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 8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 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베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한편 오늘날 많은 이가 공통으로 믿고 있는 위험한 생각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자신의 백성에게 주시되,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만 주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인 피조물과 문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하는 우리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 은사들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배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인 피조물과 문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하는 우리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 은사들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배운다. 알랜 코는 출애굽기 주석에서 "만약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글로 표현한 것이라면, 성막은 가시적 비유였고 백성은 이를 보여주는 살아 있는 모형이다."라고 설명한다. 또 "성막 건축의 유일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덧붙여 설명한다.⁷⁾

하나님의 큰 이야기에 동참했던 브살렐. 알랜 코는 출애굽기 주석에서 "만약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글로 표현한 것이라면, 성막은 가시적 비유였고 백성은 이를 보여주는 살아 있는 모형이다."라고 설명한다. 또 "성막 건축의 유일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덧붙여 설명한다. 바로 이 이야기에서 성령과 일에 대해 배울 만한 몇 가지 교훈이 있다. 이 세상에서 충실히 일하도록 성령이 허락하시는 은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유다 지파 흠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출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와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출 35:31-32)"라고 이야기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거룩한 곳, 성막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지혜로, 실제적인 정보 수집 능력과 안목을 의미하며, 성막이나 성소 짓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실제로 계산해내는 능력이다. 둘째는 명쾌하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총명과 지식이다. 셋째는 기술로, 마음과 손을 엮어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을 일터에서 일하는 자기 백성에게 주신다. 구약성경의 언약에서는 아주 적은 몇몇에게만 허락하시지만, 신약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보편적으로, 영구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신다. 이후 출애굽기 35장에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다른 이들에게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베 실로 수 놓고 짜는 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을 고안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신다(출 35:34). 여기서 결론지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선한 일을 행하도록 능력을 부어 주신다.⁸⁾

7) 주성현 역 (2014). 일의 신학. Stevens, R. Paul (2016). Work Matters. 도서출판CUP, p.72

8) 주성현 역 (2014). 앞의 책, p.76

출애굽기 31장

-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2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 3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 4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 5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 6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 7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 8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 9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 10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 11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2) 성막건축의 상징적 의미

성막(聖幕: Tabernacle)은 장막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로부터 솔로몬의 성전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위한 장소로 운반이 가능했던 성소로서 성막은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를 정확하게 나타내주기 시작한 본격적인 하나님의 건물이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최초의 건물이기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 성막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또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장소였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법궤를 두는 곳이기도 했고, 또 광야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었다. 성막은 가장 중대하고 교훈적인 모형중의 하나이다.⁹⁾

출애굽기 40장

- 2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 17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9) 오태주·이상호 (2006). 성막건축의 건축적 의미와 신학적 상징성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5권 2호 통권55호, p.158

최초의 성막은 애굽을 떠난 지 2년째 되던 해 유월절 2주 전에 시내산에 세워졌다(출애굽기 40장 2절, 17절). 모세가 세운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할 때 그 중심이 되었다. 성막 위로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려주었다.¹⁰⁾ 이스라엘의 역사 연구는 성막 연구와 일치한다. 출애굽 하여 광야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성막이기 때문이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70명이 들어갔으나 430년 만에 출애굽(출애굽기 9장 1절)하여 나올 때에는 300만 명 이상이 되었다. 이렇게 큰 민족이 되는 줄도 모르고 노예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와서야 비로소 큰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짓도록 명령하신 것이 바로 성막건축이었다. 따라서 이스라엘 독립과 동시에 탄생된 것이 성막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쓰기 위해서 먼저 주신 것이 성막이었다(출애굽기 39장 43절).¹¹⁾

출애굽기 9장

-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39장

- 43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출애굽기 25장

- 8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막은 기원전 1445년에 세워져 기원전 959년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무려 486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한 성소이며 교회 건축이다. 아울러 성막은 장차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 아니라 과거의 성전이나 회당 그리고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그리고 현대와 미래에 이르는 모든 교회건축의 모범이다.¹²⁾ 성막건축은 그 설계안에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으며(출애굽기 25장 8절) 성막의 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나가는 중요한 계단이라고 할 수 있다. 성막건축의 상징성과 의미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막건축은 ‘유일신론 사상’을 상징하며 후대의 회당과 성전 건축은 그것을 본으로 삼아 건립되었다. 둘째, 성막건축의 상징은

10) 오태주·이상호 (2006). 앞의 책, p.158

11) 오태주·이상호 (2006). 앞의 책, pp.159-160

12) 오태주·이상호 (2006). 앞의 책, p. 163

신정정치의 기초를 두고 있다. 셋째, 성막은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를 위해 세워진 최초의 교회건축이다. 넷째, 성막건축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악성을 가르치고 구원의 길을 제시해줌에 있는 것이다. 다섯째, 성막건축은 이동성과 유동성이 많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다.¹³⁾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수 있는 풍부하고 좋은 자재를 예비하셨을 뿐 아니라 친히 일할 자를 부르시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도록 맡기셨다(출애굽기 35장 30~35절). 성막건축을 위하여 지명 받은 자는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 밖의 인물들이 있다(출애굽기 35장 30절~36장 1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위해 사람을 선택하였음을 드러내시며 이 모든 일은 인간의 방법과 수고로 결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 이루어짐을 나타내고 있다. 성막건축은 구상과 설계, 작업, 봉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말씀대로 진행되었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정해놓으신 순서나 위치는 임의로 바꿀 수 없었고 또 바꾸어서도 안 되었다. 성막건축의 양식은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시고 문양과 재료 그리고 치수까지도 자세히 계획하신 하나님의 건축 작품이다(출애굽기 36장 1절~39장 43절). 따라서 성막의 건축양식은 시내산에서 계시로 보여주신 것으로 아무것도 첨가하거나 생략할 수 없었다. 이 성막건축은 완공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되었으며 하나님은 성막이 완공되자 시내산에서 자신을 모세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성막에 머물기 위해 강림하셨다(출애굽기 40장 34~35절). 성막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또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장소였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법궤를 두는 곳이기도 했고, 또 광야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었다.¹⁴⁾

출애굽기 40장

34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35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성막의 모든 기구는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졌다. 이것은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이동해야 하는 순례자이다. 우리에게 이 세상은 그저 스쳐지나가는 곳일 뿐이다. 이처럼 성막은 우주를 나타내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전 우주적인 구속사역을 설명해준다.¹⁵⁾

13) 오태주·이상호 (2006). 앞의 책, pp. 163-164

14) 오태주·이상호 (2006). 앞의 책, pp. 162-163

15) 박승용 (2021). 성막, 하늘의 위대한 모형.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제2012권 11호, p. 48

III. 결과 및 결론

성막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시 광야에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그분의 뜻을 계시받기 위해 주어진 장소이다. 모세는 하늘 성소의 원령에 따라서 땅 위에 성막을 만들었고, 모든 구조와 기명들까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만들었다. 출애굽기에 제시된 성막의 구조나 레위기에 제시된 희생제사의 규정들은 경배 혹은 속죄와 연관된 것이었는데, 그래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과 그에 따른 성도들의 삶에 모형적으로 적용되곤 한다.¹⁶⁾

한편 빌 하이벨스(Bill Hybels)¹⁷⁾는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성취해야 하는 “예수 닮은 성숙”을 3C 즉, 인격(Character), 실력(Competence) 그리고 화합(Chemistry)의 3가지로 꼽았다. 디자인 교육을 이야기할 때 수행능력을 의미하는 실력에만 초점을 맞추기 쉬운데 인격과 화합의 목표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며 실제로 인성적인 측면과 팀 작업 및 디자인 서비스 제공의 차원에서도 인격과 화합이 중요한 목표가 된다. 그러므로 디자인 교육의 목표 또한 삶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과 그 방향을 일치시키는 것이 매우 당연하고 바람직하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성막건축을 중심으로 공간디자인의 의미를 탐색한 본 결과, 그 함의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공간디자인의 사고과정에서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으며 설계안을 구현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방안과 기술 등 정교함이 동반되어야 한다.

둘째, 하나님의 은사는 교회의 일을 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간디자인 일을 수행하는 창의적인 일을 위해서도 주어지고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피조물과 문화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도움이 된다.

셋째, 성막건축을 위해 부름 받은 브살렐과 모홀리압 사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자에게 아름답고 선한 일을 행하도록 최적의 능력을 주신다.

이상과 같이 성경, 그중에서도 성막건축의 세세한 과정이 묘사되어 있는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16) 김기준 (2012). 광야의 성막과 대조해본 솔로몬 성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제2012권 1호, p. 62

17) 빌 하이벨스 (2006). 리더십. Bill Hybels (2002). Courageous Leadership, 두란노, p.87

공간디자인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는 기존 연구의 문헌고찰 일부분을 수행한 결과이므로 향후 주석 성경 연구와 보다 폭넓은 자료조사를 수행하여 공간디자인의 일반적인 프로세스와 성경에 나타난 성막건축 과정을 비교 분석해봄으로써 기독교인으로서 공간디자인을 수행하는 일과 과정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해보고 또 다른 함의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기준 (2012). 광야의 성막과 대조해본 솔로몬 성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제2012권 1호, 62-67.
- 김민재 (2018). 철학적 사유로서 상상력과 디자인사고 연구. 브랜드디자인학연구 제16권 3호, 209-218.
- 김유리·오윤성 옮김 (2004). 예술과 영혼. Brand, Hilary, Chaplin, Adrienne (2002). Art and Soul: Signposts for Christians in the Arts.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김정신 (1999). 20세기 현대교회건축 운동에 관한 비교연구. 건축역사연구 제8권 4호, 129-145.
- 류현모·강애리 (2021). 기독교 세계관 바로 세우기. 두란노서원.
- 박승용 (2021) 성막, 하늘의 위대한 모형.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제2021권 11호, 47-48.
- 빌 하이벨스 (2006). 리더십. Bill Hybels (2002). Courageous Leadership, 두란노
- 신국원 옮김 (2010). 행동하는 예술. Wolterstorff, Nicholas (1980). Art in Action. IVP.
- 오미현 (2021). 창의적 디자인사고와 디자인 프로세스를 고려한 공간디자인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지 제16권 6호, 11-23.
- 오테주·이상호 (2006). 성막건축의 건축적 의미와 신학적 상징성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 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5권 2호, 158-165.
- 주성현 역 (2014). 일의 신학. Stevens, R. Paul (2016). Work Matters. 도서출판CUP.
- 최용준 옮김 (2013). 신앙과 학문의 통합: 세계관적 접근. Harris, Robert A. (2004).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 a worldview approach 예영커뮤니케이션.